



스타 포커스 美켄자스대 농구팀 첫 출전에 광주가 들썩



“우리가 드림팀이다.” 2005년 금메달 이후 동메달 1개에 그쳐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농구 명문’ 켄자스대를 단일팀으로 내보냈다. 켄자스대 출전에 광주가 들썩었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중계방송을 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4일 광주 동강체육관에서 열린 터키와의 첫 경기에서 1쿼터를 12-21로 뒤지는 등 고전하다가 역전에 성공, 66-57로 승리했다.



말말말 기보배 “세계신기록인줄 몰랐어요”

‘신궁’ 기보배(27·광주시청)는 지난 4일 양궁 리커브 여자부 70m 라운드 예선전 1라운드에서 344점을 쏜 그는 2라운드에서 342점을 보였다. 최종점수를 확인하던 기보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함께 점수가 686점, 박성현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세운 세계 기록 682점을 넘어선 점수였다. “신기록인지 몰랐다”는 그는 “동료들의 신기록을 보면서 언제쯤 이름을 올리나 생각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고 웃었다.



광주의 아들 송종훈 고향에 金선물

광주 출신의 송종훈(한국체대)이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U대회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 러시아 나닐렌코 15-12 제압

“5년전 영광 재현...고향팬에 기쁨 선사 약속 지켜 뿌듯”



“고향인 광주에서 (U대회) 경기를 뛰고, 금메달까지 따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7일 단체전에서도 열심히 해 메달을 추가하겠습니다.” ‘광주의 아들’ 송종훈(22·한국체대)이 금메달의 약속을 지켰다. 광주U대회 출전에 앞서 송종훈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승부로 고향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 5년전 영광을 광주U대회에서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종훈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펜싱 경기장에서 열린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나닐렌코를 15-12로 제압했다.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자, 광주·전남과 펜싱에는 첫 금메달이다. 송종훈은 경기 초반 5-1로 앞서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이후 나닐렌코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1피리어드를 8-6로 앞섰다. 2피리어드 초반 나닐렌코의 공격에 주춤했지만 뒷심을 발휘, 주도권을

가져왔다. 초조해진 나닐렌코는 경고를 받으며 힘을 잃었고, 송종훈은 강점인 과감한 공격으로 나닐렌코의 의표를 찌러 15-12로 짜릿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송종훈은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레오 나르도 아페데를 15-5로 크게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고비는 16강이었다. 송종훈은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라스코코프에게 15-14 진땀을 겨냈다. 그는 “16강 1피리어드에서 패하면서 힘들었다. 하지만 준결승전부터는 잘 풀렸다”고 말했다. 이번 금메달로 송종훈은 5년의 가나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됐다. 광주 풍암중 1학년때 처음 칼을 잡은 그는 전남 공교 재학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2010년 8월 상

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예선에서 5전 전패를 당해 꼴찌로 16강 토너먼트에 올랐지만 이후 승승장구해 금메달을 목에 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후 슬럼프가 왔다. 펜싱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 진학 후 슬럼프에 빠져 펜싱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며 “3학년 때 다시 내 페이스를 찾았다. 관두지 않고 계속 하기를 잘한 것 같다”고 웃었다. 원순잡이인 송종훈은 순간 움직임이 좋고 파라드(막고 찌르기) 동작이 뛰어나다. 또 영리하다. 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간파, 되받아치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송종훈은 7일 오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관왕을 노린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U대회

- ▲수영=남자 자유형 200m·개인혼영 200m·자유형 400m, 여자 평영 100m·자유형 100m 결승(19시52분, 남부대국제수영장)
- ▲수구=남자 한국-싱가포르(20시, 영주실내수영장)
- ▲양궁=기보배·최미선 등 리커브 남녀 개인·단체·혼성(9시30분, 광주국제양궁장)
- ▲배드민턴=남녀 단체전 예선(9시, 화순화니움문화스포츠센터)
- ▲야구=한국-일본(18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 ▲농구=여자 한국-캐나다(17시30분, 영광스포티움체육관), 남자 한국-중국(20시, 동강체육관)
- ▲펜싱=플리레 남자 개인전 예선 및 결승(9시), 사브르 여자 개인전 예선 및 결승(1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축구=여자 한국-아일랜드(16시30분, 나주공설운동장)
- ▲체조=남녀 개인종합 결승(14시30분,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 ▲핸드볼=여자 한국-중국(16시, 고창군립체육관), 남자 한국-멕시코(20시, 구례실내체육관)
- ▲유도=여자 52kg급·57kg급, 남자 66kg급·73kg급 예선 및 결승(9시, 영주빛고을체육관)
- ▲탁구=남녀 단체전 예선(10시, 장성흥길동체육관)

U대회 함께 즐겨요

- ▲세계청년축제 신해철(렉처멘터리)·류시형(김치버스) 강연 3시30분 갤러리D
- ▲청년난장페스티벌 오후 6시 금남로 일원
-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스코어보드

	한국	여자농구	80 : 64	모잠비크	
	한국	여자배구	0 : 3	칠레	
	한국	남자 축구	1 : 0	이탈리아	
	프랑스	남자 축구	1 : 1	멕시코	

김성연 亞넘어 세계로

여자 70kg급 결승 일본 꺾어



“한국 여자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이어 광주U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성연은 5일 광주 영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유도 7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오사나이 카츠키를 유효승으로 꺾고 시상대 맨꼭대기에 올랐다.

김성연은 경기 시작 1분10초만에 지도 1개를 따냈고, 2분36초를 남기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유효승을 얻었다. 앞서가던 김성연은 지도 1개를 받았으나, 1분30여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기술로 또 하나의 유효승을 얻어냈다. 56초를 남기고는 오사나이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남은 시간을 잘 버텨 승리를 승리를 거뒀다.

앞서 김성연은 준결승에서 브라질의 올리비아 아만다에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순천 출생인 김성연은 순천 신홍초 2학년때 유도와 인연을 맺었다. 전남제중·고, 용인대를 거쳐 지난해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동지를 틀었다.

이후 정신력과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여명검과 전국체급 대회에서 라이벌 황예슬을 잇따라 제압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체급별대회에서는 전 경기에서 실점을 한 점도 하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보여줬다. 이어 대만 아시안오픈대회에서도 전 경기 무실점 한판승 행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의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의 아라이 치즈루를 어깨로 매지기 절반으로 제압,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광주U대회에서 세계 대학생 최강자로 우뚝서며 내년 리우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김성연은 금메달을 딴 뒤 “운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부상으로 힘들었다”며 “그래도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첫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역시 기보배...세계신 명중

70m 라운드 예선 686점...한국 대표팀 1·2·3위 싹쓸이



‘광주의 딸’ 기보배가 광주U대회 양궁 리커브 여자부 예선에서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런던올림픽 2관왕이자 대표팀 만인인인 기보배(광주시청)는 지난 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부 70m 라운드 예선전에서 720점 만점에 686점을 쏘 세계기록을 다시 썼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박성현이 세운 682점을 4점이나 넘어선 것이다. 기보배는 1라운드에서 344점을 기록하며 말미까지 앞서갔고 2라운드에서도 342점을 기록, 여유있게 1위로 본선에 올랐다. 이번 대회 직전 열린 중국 상하이 양궁월드컵에서 3관왕에 오른 강재영(경희대)은 679점, 터키 안탈리아 양궁월드컵 2관왕 최미선(광주여대)이 673

점으로 뒤를 이었다. 리커브 예선전에서 1,2,3위를 싹쓸이한 여자 대표팀은 개인전 점수합계로 결정된 단체전 예선에서도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여자 대표팀은 이날 함께 2038점으로 지난해 5월 콜롬비아 메데린 양궁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세웠던 기존 기록 2032점을 6점 뛰어넘었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코오롱)이 693점, 구본찬(안동대)이 686점, 김우진(정주시청)이 683점으로 1,2,3위를 차지했다. 남녀 개인전 본선 진출자 104명을 가리는 이날 경기에서 상위 8명은 32강에 직행하고 나머지는 96강 토너먼트부터 올라가야 한다. 한국 선수들은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4강전까지 마주칠 일이 없게 됐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기보배가 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양궁 리커브 랭킹라운드에서 세계신기록을 명중한 화살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